지혜 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현실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잠언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 지혜 시리즈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 땅을 살고있는 우리에게 그냥 무작정 살게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다. 백령도의 '매'도 자식이 스스로 사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사고방식을 주신다. 하늘의 사고방식이 바로 '지혜'이다. 잠언 말씀을 보라. 솔로몬이 쓴 것이지만 말씀을 보면 '아들아'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배워라. 라고 쓰여있다. 결국 솔로몬이 쓴 지혜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 아버지 다윗이다. 다윗이 누렸던 엄청난 땅의 복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땅의 권세와 복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준 것이다. 그 힘이 지혜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계시'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 계시가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땅을 사는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하늘의 계시가 이 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해서, 땅의 언어로 적용되는 것이 지혜이다.

[히브리서 11:10]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나간 구체적인 이유가 히브리서 11:10에 나와있다. 하나님은 그냥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건설해서 하늘의 사고방식을 풀어내신다.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통합왕국 이스라엘의 첫번째 왕이 다윗이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방민족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통치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사고방식인 지혜를 부어줄 사람과 공동체를 찾고 계신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늘의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

[역대하 1:9-11]
9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11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1) 타이틀이 아니라 정체성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왕의 신분으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였는지 보았다 (9절: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왕위). 왕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아버지 다윗이 위대한 왕이될 수 있었던 이유를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원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한번도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라고 말하고 있지않다. 타이틀이 본질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타이틀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하다.

(2)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겸손이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것이다. 왕이라는 지위가 아닌, 아버지의 강력한 통치가 무엇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알았다. 보는 눈이 다르다. 핵심을 볼 줄 안다. 아버지를 보면서 고민했다. 아버지의 통치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고민했다는 것이다. 아버지 다윗 왕의 타이틀이 주는 화려함과 권력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왕을 왕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사람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소유적 사고'가 아니라 '존재적 사고'이다. 왕이라는 타이틀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고이다.

돈과 권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돈과 권력을 소유한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존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에 관심이 있다. 구체적으로 생각의 구조, 사고방식에 관심이 있다. 창조적 세계관이란,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창조물을 만든 창조주와 그의 뜻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며, 존재의 이유를 묻는 'Why?'적 세계관이다. 존재의 이유를 묻는 사고는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작품을 만든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 작품이 내게 실제적 영향력이 된다. 작가와 한 마음이 되어 작품을 볼 수 있게된다.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보여지는 타이틀과 권력, 명예, 돈에 집중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가 그 안에 없는 것이다. 속물적 인간이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타이틀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다. 이것이 교만의 상태이다.

솔로몬이 압살롬과 다르게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이다.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존중의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는다. 왜? 배울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나보다 밑으로 보는 태도를 말한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머리로 사고하면 기능만 전수받지만, 마음으로 사고하면 기능 플러스 전부를 전수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3) 현실을 고민하면 지혜를 구하게 된다.

[역대하 1:10]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솔로몬이 하늘의 사고 방식인 지혜를 구한 이유는 분명하다. 이제 왕이 되면 솔로몬이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그 당시 왕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사람사는 세상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그 문제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 판단하면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된다. 억울한 자, 가슴에 맺힌 자들이 없는 세상이 바로 온전한 나라이다. 그것이 정의와 공평이 있는 나라이다. 정의와 공평은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억울한 자들이 없다. 억울함이 풀린다. 차별이 없다.

[이사야 11:1-8]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새의 줄기는 누구인가? 다윗과 솔로몬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이 갈망했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3~4절). 정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에게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지혜,총명의 영 등)이 부어져있다.

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이다. 한 마디로, 권위와 권세가 부어진다는 것이다. 지혜의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6~8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리와 어린양이 살아도 괜찮은 세상이다. 이리와 어린양이 살면 어린양이 항상 억울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정의와 공평의 왕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오늘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구한 이유는 분명하다. 이리와 어린양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을 보았고, 억울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과 돈의 힘으로도 분쟁은 막을 수 있지만 그 마음안에 있는 분쟁까지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혜는 마음의 분쟁을 해결한다. 그래서 이리, 표범, 곰, 사자도 만족을 하고 양, 염소, 송아지, 암소도 만족을 한다. 결국 지혜는 무엇인가? 현상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들을 수 있는 귀이다.

(4) 사랑이 있는 사람이 고민한다.

현실의 문제,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왕의 마음이 바로 지혜이다.

[역대하 1:11]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안에 있는 고민을 아셨다. 분쟁이 있는 곳, 어려운 곳, 고통이 있는 곳을 회복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솔로몬의 고민을 아셨다. 누가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그 영역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사고방식을 허락하신다.

지혜는 구체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존중하는 사람, 즉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한다. 어려운 문제를 내 마음처럼 여기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다. 애통하는 마음이며, 팔복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11절처럼 말씀하신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아는 왕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 하신다.

(5) 지혜는 하늘로부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역대하 1:12]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신다. 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신다. 지혜는 하늘의 사고방식이다. 하늘의 사고방식은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사람, 즉 내 문제처럼 여기는 마음이다. 하늘의 사고방식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제 이 땅의 아픔을 모르는 이상적 지식으로부터 나오자. 그리고 이 땅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왕의 마음을 구하자. 그 마음이 지혜의 왕,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현장으로 나가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나가자. 하늘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솔로몬에게 주었던 땅의 힘도 함께 주실 것이다. 아멘.